국립현대미술관장에 윤범모 교수

2월 1일 임명… "부처님 가피에 감사"



윤범모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사진>가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됐다.

윤범모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명 통보를 받았다. 2월 1일자로 취임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까지 3년이다.

윤범모 교수는 1979년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계간미술(월간미술 전신)〉 기자로 활동했다.

30여 년간 다수의 근대미술사 연구저작들을 펴냈으며, 한국 근대 거장들과 북한 미술과 관련한 리얼리즘 관련 전시들을 주로 기획해왔다.

19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을 일으킨 소집단 '현실과 발언' 창립멤버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족미술협의회 산하 '그림마당 민' 운영 위원으로 참여했다.

1995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창립 당시 특별전 기획자와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시감독을 맡았다. 또한 가천대 교수와 경주엑스포 전시총감독,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한국큐레이터협회 초대 회장,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본지와의 인연도 깊어 2005년에는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에는 실크로드에서 석굴암까지의 여정을 그린 '불도 기행'을 연재하기도 했다.

윤범모 교수는 "동국대 출신으로 국가 중요 미술관의 수장이 돼 기쁘다. 모두 부처님 가피 덕분이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여래사불교대학 학생들이 인창병원 병실을 돌며 준비한 간식을 환자들에게 선물하고 인사를 전했다.

"환우들 빠른 쾌유 기원"

여래사불교대학, 인창병원 환우 방문

병원에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여래사불교대학 학생들이 병원을 방문해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로한 것이다.

여래사불교대학(학장 원범)은 1월 24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인창병원을 방문하고 제9회 인창병원 환우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소재지인 부산 동구에서 독거노인 반찬 배달 및 병원 방문 등 봉사를 이어왔다. 이번 인창병원 방문은 봉사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불교대학 학생들은 직접 마련한 간식을 들고 병실을 방문해 전달했으며 원내에서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한편 여래사불교대학은 '교육은 문명의 꽃이요, 문명은 교육의 열매'라고 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르침을 기치로 개원했다.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서 30년 역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복지법인 연꽃마을 중장기 발전의 해로"

Interview

연꽃마을 제4대 대표이사 원상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3안거 성만한 수좌 스님 출신

사찰 경영, 법인관리 역량발휘

3월 취임과 함께 장기계획 발표

"불교복지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첩경입니다. 은사스님의 원력을 이어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제4대 대표이사로 원상 스님(단양 미륵대흥사 주지)이 선출됐다. 연꽃마을 법인 이사진은 1월 16일 용인 법인사무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원상 스님의 대표이사 취임을 가결했다.

이날 새롭게 대표이사로 선임된 원상 스님은 "부족하나마 연꽃마을 임직원 여러분들과 두루 소통하며 함께 하겠다"며 "월탄 큰스님을 비롯해 덕산문도의 사형사제들과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대 대표이사였던 원명 스님은 1월 17일 임기만료에 앞서 퇴임의 뜻을 밝혔다. 원상 스님은 1월 18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제4대 대표이사로서 활동에 착수했으며, 오는 3월 중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원상 스님은 2014년 원적한 연꽃마을 2대 대표이사이자 중흥주인 故각현 스님의 두 번째 상좌다. 1986년 법주사에서 출가한 이후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법주사, 대승사, 대흥사 등에서 33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이다.

스님은 이와 함께 천안 은석사, 대구 정법사, 북한산 부황사 주지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소임 경험과 운영역량도 지니고 있다. 현재 금성선원 선원장, 전국 선원수좌회 총무분과 위원장 등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단양 미륵대흥사 주지로 임명받아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는 등 사찰 경영에도 역량을 키워왔다.

스님은 "입적한 은사스님이 현재 연꽃마을을 일구고 이어 사형인 원명 스님이 유지를 이어왔다.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법인과 산하기관의 발전, 그리고 은사스님이 펼치신 효의 사회화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사무처에 따르면 연꽃마을은 올해 4월 효사랑마라톤대회를 비롯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나눔행사 등 절기마다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시설장 회의를 통해 우수직원과 우수시설 표창 등도 이뤄진다. 또 각현 스님 5주기 추모법회도 11월 30일 개최한다.

원상 스님은 "연꽃마을은 2020년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산하 시설과 종사자들의 화합, 그리고 전국에 위치한 의료복지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구성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다. 3월 취임식을 기점으로 중장기 계획을 함께 밝히도록 하겠다"며 대중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강제징용 희생유골 송환 도움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계종 예방해 협조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송환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을 한국 땅으로 송환하는 사업에 조계종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예방을 받고, 민화협이 일본 불교계와 추진 준비 중인 동북아 평화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김홍걸 상임의장은 "불교계는 북한 전통 문화재와 사찰을 중심으로 보수, 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연스런 민간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3월 중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머리를 풀었다.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환국 사업을 지난해 여름부터 일본 불교계와 논의해왔다"며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과거사를 바로잡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환국 사업에 조계종도 나서준다면 한국, 일본, 나아가 북한까지 참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원행 스님은 "이전 방북 때마다 민화협 주도 하에 이뤄지는 민간교류가 많은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며 "2월 중순경 북한서 열리는 남북공동행사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대북 관련 논의를 하는 한편, 북한 사찰과 사찰 주변 산림을 관리 보존하는 사업을 청와대와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민화협의 요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민화협 측에서 이영동 상임집행위원, 김정호 체육교류위원장, 김성권 청년미래위원장이, 조계종 측에서 사회부장 덕조 스님, 기획실장 오심 스님, 사서실장 삼혜 스님 등이 배석했다. 김지원 기자

"의료봉사로 인도에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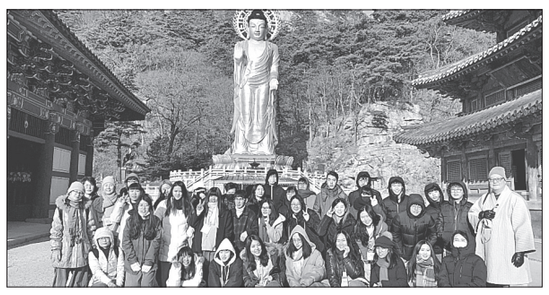
(사)세상을향기롭게, 의료봉사 · 후원활동 펼쳐



(사)세상을향기롭게(대표이사 정여)는 1월 19~28일 인도를 방문, 의료봉사와 후원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이사 정오 스님과 세종파라미타 회원 및 봉사자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정오 스님은 "따뜻한 나눔을 세계에 펼칠 수 있어 기쁘다. 온 세상이 부처님 가르침과 자비로 맑아지길 기원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템플스테이 재밌어요!"

대만 불광대 학생 30명, 한국불교문화 즐겨



대만 불광대학교 한국문화체험단 학생 30명은 1월 24~25일 서울 및 속리산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즐겼다. 이번 체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불광대학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화사업단은 2017년부터 불광대학교에 템플스테이 지원을 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대승조계종 종정에 현각 스님

부산 서림사서 법회, 500여 사부대중 운집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취운)은 1월 27일 부산 사하구 서림사 대법당서 제4대 종정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불입종 종정 면철 대종사, 사하구 사암연합회장 범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으로 추대된 효산 현각 스님은 "선각자로서 후학들을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2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